

	1강. (가) 모죽지랑가	(나) 화왕가
<p>1단계) 내용 중요 시어 (긍정: ○, 부정: △) 및 내용 정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간 봄: 지나간 봄. 죽지랑과 함께 했던 시간 ■ 아름다움을 나타내신: 죽지랑이 살아 있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. 죽지랑의 인품을 '아름다움'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찬함. 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: 죽지랑이 나이가 들어 주름살을 지닌 모습이 됨. 늙은 죽지랑의 모습. 현재와 과거의 죽지랑의 모습이 대비됨 ■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: 잠시라도 죽지랑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이 나타남. ■ 다복썩 우거진 마을: 죽지랑이 죽은 후의 상황으로 작품을 해석할 경우 '다복썩 우거진 마을'은 무덤으로 해독(양주동)할 수 있음. 해독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.) <p>▶ 1~2구: 죽지랑과 함께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 ▶ 3~4구: 죽지랑의 모습을 떠올림. ▶ 5~6구: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▶ 7~8구: 죽지랑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(나) <주제>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[전각이 깊고~ 화왕가를 노래했네]: 궁중 안에서 신하가 임금을 만나 '화왕가'를 노래 ■ 진홍색 연자색 꽃(△): 간신. ■ 임금의 마음이 쉬이 잘못될까 염려했소: 진홍색 연자색 꽃이 교태를 부려 임금이 미혹되어 정사를 그르칠까 염려(임금에 대한 충심). ■ 백두옹(○): 할미꽃. 군자. 충신. ■ 온갖 잡초(간신, △)에 함께 뒤덮여서: 백두옹과 같은 군자가 필요한데 잡초에 가려 눈에 띄지 않음. 군자를 천거하는 것과 현인을 가까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, 당시 정치 현실을 풍자.) ■ 나라를 이룰지 엮을지를 일찍 구별해야 하니: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(흥망성쇠)이 달라질 수 있음 ■ 색황*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하는 것만 하리오: 여색에 빠지는 것보다 어진 자를 가까이 할 것을 설득함. ■ 이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의 임금이: 신하의 충간을 수용한 임금 ■ 태화를 이루었네: 태평과 화합(태평성대). 임금의 선정 ■ 꽃향기를 모으니(○): 각지의 인재를 조정으로 불러들임. ■ 난손과 두약*이 뽀뽀하게 늘어섰네: 임금의 선정으로 인해 난손, 두약과 같은 인재들이 모임. ■ 훌륭한 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여: 올바른 충간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세운 설총을 예찬하는 태도가 나타남. ■ 보물 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: 나라 안의 근심이 사라짐 <p>▶ 1~2행: 신하가 임금을 위해 '화왕가'를 노래함. ▶ 3~6행: 화왕의 다스림과 임금의 변심에 대한 염려 ▶ 7~12행: 백두옹과 같은 군자가 등용되어야 한다고 임금에게 충간함 ▶ 13~16행: 임금이 신하의 충간을 수용, 나라의 태평과 화합을 이룸. ▶ 17~18행: 설총이 한 일에 대한 예찬 <주제> 제왕의 바른 도리를 일깨운 설총의 업적과 그에 대한 예찬</p>
<p>2단계) 구조 표현법· 시 전개 방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잘 밤이 있으리이까: 설의법 ■ 종교적·주술적 색채가 없는 순수 서정시임. ■ 감정이입이 드러남. ■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설총의 「화왕계」를 모티브로 함. ■ 인간의 모습을 식물에 비유함. ■ 설총과 신문왕 사이의 일화를 서술한 뒤, 왕에게 깨우침을 준 설총을 예찬
<p>공통점·차이점 (내용상, 형식상)</p>	<p><공통점> ① (가)와 (나)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.</p>	

	2강. (가) 정과정곡	(나) 소약부
<p>1단계) 내용 중요 시어 (긍정: ○, 부정:△) 및 내용 정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 : 고려 의종 ■ 산(山) 접동새: 화자의 감정이 투영됨. 감정 이입의 대상. ■ 아니며 거짓인 줄: 거짓되고 허황한 줄을 ■ 잔월효성(殘月曉星)(○): 지는 달, 새벽 별,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. 천지신명. ■ 낮이라도 임과 한곳으로 가고 싶어라: 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 ■ 우기던 이(△): 자신을 모함한 자 - 원망의 대상 ■ 과(過)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: 자신의 결백을 주장. <p>▶ 기(1~4행): 자신의 처지와 결백 토로 ▶ 서(5~10행): 임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결백에 대한 호소, 참소를 당한 슬픔 ▶ 결(11행): 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</p> <p><주제> 임을 향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, 자신의 결백 호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거미야: 명시적 청자 - 시적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. ■ 앞길에 거미줄을 쳐 두었다가: 자신을 저버린 나비가 곤경에 빠질 수 있도록. 시적 화자가 거미에게 부탁하는 내용. ■ 나(시적 화자)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: 다른 꽃 = 다른 연인. ■ 위의 저 나비: 임. ■ 거미줄에 걸리게 해 제 허물을 뉘우치게: 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, 뉘우치게. 거미에게 거미줄을 쳐 달라고 부탁하는 이유와 목적 <p>▶ 거미에게 거미줄을 쳐 달라고 부탁함. ▶ 부탁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힘.</p> <p><주제>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에 대한 원망</p>
<p>2단계) 구조 표현법. 시 전개 방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0구체 향가의 전통을 잇는 3단 구성을 사용함. ■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정서를 더욱 애절하게 표현함. ■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거미야(은유법. 돈호법. 명시적 청자 ■ 자연물을 활용해 우의적으로 표현함. ■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표현함. ■ 이제현의 소약부에 화답하여 창작한 작품임.
<p>공통점·차이점 (내용상, 형식상)</p>	<p><공통점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가)와 (나)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있다. ② (가)와 (나) 모두 화자가 임에게 이별을 당했다. ③ (가)와 (나)의 화자 모두 자신의 정서와 태도를 진솔하게 드러낸다. ④ (가)와 (나)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 <p><차이점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가)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이입한 객관적 상관물이 나타나고, (나)에서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자연물을 통해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 	

	3강. (가) 귀거래	(나) 강산 좋은 경을	(다) 공명울~
<p>1단계) 내용 중요 시어 (공정: ○, 부정:△) 및 내용 정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[귀거래(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)~말 뿐이오 갈 이 없어: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 당시 관리의 이중적 속성을 언급 ■ 전원이 장무(將蕪)* 하니: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향이 황폐해질 것을 염려함. ■ 아니 가고 어쩔고: 고향의 논과 밭이 거칠어지니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당위성을 강조 ■ 초당(작은 집.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)에 청풍명월(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)이 나명 들명(초가집에 자연이 들며 나며 함) 기다리나니: 자연과의 합일을 꿈꾸는 마음이 드러남. <p>▶초장: 귀거래를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세태 ▶중장: 전원으로 돌아갈 때에 대한 인식 ▶종장: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 <주제>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강산 좋은 경(자연의 아름다운 경치)을 힘센 이 다툼 양이면(힘이 센(권력자):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와 다투다고 치면(상황의 가정) ■ 내 힘과 내 분(‘힘센 이’, ‘내 힘과 내 분’이 대조를 이룸.)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니 : 내 힘과 내 분수로 얻을 수 없다. ■ [진실로 금할 이(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존재) 없을 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]: 진실로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으므로 나 같은 사람도 마음 놓고 즐기며 노닐 수 있음. <p>▶초장: 자연 경관에 대한 상황의 가정 ▶중장: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 ▶종장: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식 <주제> 자연에서 노닐고자 하는 마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[공명(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.)을 헤아리니 영욕(영예와 치욕)이 반이로다]: 공을 세워 이름을 알리면 영예롭기도 하지만 치욕적이기도 함을 지적함. 공명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. ■ 명월이 자래하니(스스로 옴.)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(천지지간. 하늘과 땅 사이)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]: 벼슬에서 물러난 화자가 전원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(유유자적) ■ [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(老死太平)(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음.)하여 승화귀진*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]: 전원 속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 <p>▶초장: 공명의 영예로움과 욕됨 ▶중장: 전원생활에서의 유유자적함 ▶종장: 자연에 몸을 맡긴 삶에 대한 만족감 <주제> 전원생활에 대한 지향</p>
<p>2단계) 구조 표현법 시 전개 방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인화한 표현이 나타남. 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를 강조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어이하여 얻을쏘니: 설의법. ■ 가정법, 설의법을 통해 서로 다투는 세속적 세계를 은근하게 비판하는 태도가 나타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:설의법
<p>공통점·차이점 (내용상, 형식상)</p>	<p><공통점></p> <p>① (가)~(다)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과 정서적 풍요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. ② (나)와 (다)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속세의 근심을 잊고 평안을 얻고자 한다.</p> <p><차이점> ① (가)의 화자는 의지적인 어조로, (나)의 화자는 자조적인 어조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한다.</p>		

	4강. (가) 사우가	(나) 거문고 술을 꽃아	(다) 어화 세상 벗님네야
<p>1단계) 내용 중요 시어 (긍정: ○, 부정:△) 및 내용 정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동쪽 울(울타리)에 심은 국화(○): 지조, 절개, 충의 ■ 봄별(따뜻한 느낌)을 마다하고 찬 서리(△): 시련과 고난 ■ 어즈버: 감탄사. 국화에 대한 감탄과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냄. ■ 청고한(맑고 고결한. 찬 서리에 혼자 피는 국화의 맑고 고결함.) 내(화자) 벗(○): '청고'한 삶에 대한 동경 <p>▶ 국화의 고귀함을 모르는 세태 ▶ 찬 서리에 혼자 피는 국화 ▶ 청고한 벗인 국화 <주제> 서리 속에 홀로 피는 국화에 대한 예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거문고 술* 꽃아 놓고 호젓이(매우 홀가분하게 쓸쓸하고 외롭게) ■ 사립문에 개 짓으니: 반가운 벗의 방문 소식을 전달함. ■ 반가운 벗(○): 화자가 반가워하며 맞는 대상. ■ [점심(소박한 음식)도 하려니와 외상 탁주(소박한 음식) 내어라]([: 벗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. 정겨움. <p>▶ 거문고를 연주하다 술대를 꽃아 놓고 낮잠에 듭. ▶ 벗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 ▶ 벗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함. <주제> 자연에서 노닐고자 하는 마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세상 벗님네야 : 불특정 다수. 화자와 속세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. 자신의 깨달음을 전할 대상. ■ 뜬구름(△): 부귀를 비유함. ■ 풍진(風塵)(△): 공명을 비유 ■ [백 년도 못 사는 인생(인간은 '백 년도 못 사는' 존재임. 수명의 한계를 인식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 ■ 부귀와 공명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위해 노력한 역사 속 인물- 진시황, 한무제 ■ 공도(公道)*라니 백발(白髮)이요: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 현상은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이치임. ■ 못 면할 손 그길(죽음을 면할 수 없었음. 삶과 죽음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임.)이라] ([: 세상을 호령하며 최상의 부귀공명을 누린 황제들도 결국에는 늙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, 인생에서 유희에 당위성을 부여함. ■ 우리 같은 [초로(풀잎에 맺힌 이슬)인생] ([: 인생의 무상함. ■ 아니 놀고 무엇하리: 놀며 즐기기를 권유 ▶ 부귀공명의 헛됨. ▶ 노화와 죽음으로 가는 인생길 ▶ 놀면서 인생을 즐기기를 권유함. <주제> 허무하고 짧은 인생에 대한 한탄과 놀고 싶은 마음
<p>2단계) 구조 표현법· 시 전개 방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감각적 이미지로 국화의 속성을 표현. ■ 자문자답의 말하기 방식. ■ 국화를 벗으로 인식하여 '청고'한 삶에 대한 동경을 보여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적인 공간적 분위기가 동적으로 전환됨. ■ '사립문', '탁주', '점심'과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소박한 삶을 표현함. ■ 요청하는 말하기 방식이 나타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역사 속 인물들의 행적을 인용함. ■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여 인생의 가치를 전달함. ■ 다양한 비유적 표현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함.
<p>공통점·차이점 (내용상, 형식상)</p>	<p><공통점></p> <p>① (가)~(다)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과 정서적 풍요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.</p> <p>② (나)와 (다)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속세의 근심을 잊고 평안을 얻고자 한다.</p> <p><차이점> ① (가)의 화자는 의지적인 어조로, (나)의 화자는 자조적인 어조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한다.</p>		

